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Jesus is still alive!

오늘, 부활주일

사순절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합함을 고백하였습니다. 매순간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특별집회와 성찬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2천 년 전 피땀벅이셨던 예수님을 느끼며 보혈로 충만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단자들이 말하

는 일시적인 소생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부활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약속된 죄인들에게 전해진 최고의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성금요일 특별집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요한복음 19:17~20)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가? 그 날에 이루어졌던 맹목하고 잔인한 사건 하나하나를 그릴 수 있는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진 몸이었다.(요 19:23; 마 27:29~30,39)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벌거벗음과 저주를 덮어 주시는 완전한 속죄였다.(갈 1:4)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에게만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를 적시며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 내렸다.(요 19:34; 시 22:1,12~15; 사 53:1~2)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요 19:33~35) 각양각색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한다.(출 12:13; 롬 3:25)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 줄 수 있다.(레 17:11) 피 흘림이 없는 종교는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피의 종교이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요 22:19~20; 요일 5:8) 물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다.(창 2:6) 피가 없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레 19:13) 떡과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구약성경을 보면 속죄의 날에 율법책 위에 피가 뿌려졌다.(레 16:14~16) 우리의 속죄함이 갈보리 산 위에서 완성되었다.(레 17:11)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마 28:18)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 되셨다.(골 10:9; 히 9:22)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피를 자기 자신에게 뿌리셨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로부터 풀려 나오게 되는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출 12:23~24)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출 24:6~8) 십자가 주위를 깨끗하게 하셨다.(출 29:12,15) 대제사장의 예복을 정제 하셨다.(출 29:20~21) 십자가 밑과 옆을 정제 하셨다.(레 4:6~7, 5:9, 7:2; 민 19:14) 이 모든 것이 갈보리 언덕 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유혈처럼 양이 되어 주셨고, 구세주가 되셨으며, 우리의 피 희생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갈보리 언덕으로 다 지고 가셨다.(시 22:1; 마 27:46; 함 1: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죄’가 되셨다.(고후 5:21)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몸이 피로 범벌이 되어 다 가려질 때까지 아들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롬 5:8~10)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히 9:14~15)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하나님께 드리자.(히 10:19~20) “그 옛날 주가 걸은 길, 나 오늘 걷겠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꾼

다음 주일(30일), 4부예배 후 피택자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지난 당회(12일)의 결정에 따라 제41대 장로 후보자, 제21대 안수집사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피택자들이 선별되어 당회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일꾼들과 당회원들은 먼저 기도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28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이제 다음 주일, 4부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자들은 최종 결정됩니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명단은 본지 7면 참조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¹⁾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⁵⁾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 ⁽⁶⁾ Then He said to me,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I will give to the one who thirsts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⁷⁾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Revelation 21:1~7)

Everyone likes new things. People get bored with old things, and buy new things all the time. New things are initially exciting, but eventually become old things and get dull. Even when someone buys an antique, which is already old but new to the person buying it, he or she eventually loses that first thrill. Everyone discovers that new things just do not remain new for long. In today's Bible passage, God talks about making new things that remain new forever. How exciting i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God made all new things, and even after humankind messed it up and continues to mess it up, He still continued and continues to make new things. At the end of the Bible, when the end of this age comes, earth, heaven, and life as we know it will completely pass away because God is making a new kind of new. Everything new that God is making is for His kingdom. Let us look at some of the new things occurring today, and the special new things we can expect in the near future.

God makes new things on those who receive Jesus Christ. Right now, when someone receive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receive a new life with a new power to live it. They become a child of God,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2~13) Every sinner, no exclusions, who comes to faith in Jesus becomes a new creature with a new nature and has a new hop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Jesus wipes away and forgives all sin. Believers get a new record that remains clean through repentance. They also get a new perspective. All the things that person loved before lose their appeal because spiritual insight is different than worldly insight. Unbelievers cannot see God's work, only believers in Christ have that new ability, just as only believers in Christ receive a new heavenly home. Paul explained this mystery to the Colossians, "Of this church I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stewardship from God bestowed on me for your benefit, so that I might fully carry out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hat is,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the past ages and generations, but has now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to who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 1:25~27) New things begin at new birth, and new birth begins when a person places their faith in Jesus Christ.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n. 3:5)

God will make new things when Christ returns. Paul told the Corinthians, "Now I say this, brethren, that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the perishable inherit the

imperishable.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1 Cor. 15:50~53) When Jesus comes again, all believers will be changed. He further describes to the Thessalonian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1 Thes. 4:16~17) Whether we are alive or have already died, when Jesus returns our old bodies will be changed to forever new ones. Most of us will leave this life with few if any teeth, little hair, and many wrinkles, but when Christ comes back to this earth all that will immediately change. Every part of our old body will be made brand new and built to last forever. 1 John 3:2 says,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That is exciting! The fortunate Christians will never die. They will be instantly changed like Jesus.

God will make new things when He rebuilds the universe. He is going to make a new earth and a new heaven (v. 1), and even a new Jerusalem (v. 2) He is going to dwell among His people (v. 3), and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death; there will no longer be any mourning, or crying, or pain; the first things have passed away." (v. 4) God is going to make "all things new" (v. 5) He told John, "It is don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I will give to the one who thirsts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vv. 6~7) The present creation will be destroyed so that it may be cleansed from all the effects of sin, and the heavenly city of Jerusalem will be the abode of all the saints. People will enjoy a new intimacy with God and the elimination of those sorrows that sin brings.

Have you been made new by receiving Jesus Christ?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re you ready for Christ's return? Do you actually have joy and excitement in your heart for the new things to come? All these new things are not just talk, not just a dream, they are real because Jesus is real. He died for you, so that you w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He died so you could have everything new that God is making. I hope you are ready for Christ's second coming, for the enjoyment of the best new things ever. Amen.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⁶⁾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1~7)



김성완 목사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에 싫증을 내고 새 것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새 것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흥분되지만, 그것도 잠깐 결국은 현 것이 되어 싫증을 냅니다. 이것은 골동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동품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물건일 뿐 새로운 다른 감동은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일지라도 그 새로움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영원히 새 것으로 지속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의 제일 앞 부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신 일과 인간이 그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뒤죽박죽 상태는 오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의 제일 끝 부분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 하나님이 지금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것들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모든 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신자들은 회개를 통하여 계속 깨끗함을 지속할 수 있는 새 기록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매력은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늘의 새 집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회개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5~27) 새로운 것은 새로운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마지막 나팔에 울려나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

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울려나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얻으리로다”(고전 15:50~53)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신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우리가 살아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옛 몸은 영원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만약 남아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치아, 몇 올의 머리카락, 무수한 주름을 남길 뿐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즉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몸은 모두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된 우리 몸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2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으로 놀랍고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다시 세우실 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1절),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입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친히 거하실 것입니다.(3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4절)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5절)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6~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끗하도록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이 머물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롭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죄로 말미암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장차 새롭게 될 일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진재이기에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8. 3. 19.)

마지막 시험 (마태복음 27:35~44)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을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에 없었다. “호산나나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은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메시야를 고대하며 성경을 연구하였다. 감히 우리의 신앙에 건줄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종교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하였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의 것들로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셨고, 이제 성경대로 죽으실 메시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 영적 맹인이

우리가 아닌가? 사순절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마 27:35) 이것은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나이다”(시 22:18)는 말씀의 성취이다. 또한 십자가 곁을 군인들은 지켰다.(마 27:36) 이 모습도 이미 예언되었다.(시 22:17)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마 27:39, 43) 이 모습도 시편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시 22:7~8) 이 얼마나 놀랄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인가! 그럼에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이들에게 성경은 자신의 종교관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외식과 위선에 빠진다. 겉손으로 위장한 옷을 입고, 타협된 복음을 말하는 거짓 십자가 된다. 장신구가 되어버린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 진실로 십자가를 믿는 자가 없다. “그러”라는 절문과 불평만 함은 믿음의 실천과 순종은 없다. 이 모든 범죄의 출발은 불신앙이다. 회개하자. 이제 더 속지 말고 마지막 시험의 현장인 갈보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

마가복음 강해 20

* 매우 필요사역기도(사역비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6개 씨의 비유 (4:1~9)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기를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막 4:1)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때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다.(막 3:23, 12:12) 비유는 구약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다.(겔 17:2)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막 4:2) “들으라”(막 4:3)로 시작된 천국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씨가 길 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눅 8:11) 그런데 각각의 밭에 떨어진 씨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낳았다. 길 가에 떨어진 씨는 곧바로 새들의 먹이감이 되었다.(막 4:4) 돌밭에 떨어진 씨는 썩어 나오기는 하지만 강한 햇빛에 말라 죽었다.(막 4:5~6)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썩어 나고 조금 자랐지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막 4:7) 열매를 맺은 곳은 좋은 땅뿐이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막 4:8)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순종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길 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의 심령이다. 이들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은 곧바로 사탄의 먹이감이 된다. 돌밭 같은 심령은 말씀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된다. 가시떨기밭 같은 심령은 복음이 좋고, 깨달음의 역사도 있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타협한다. 반면에 좋은 땅 같은 심령은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의 결과이다. 좋은 땅과 열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어떤 힘과 열정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

마지막 시험은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이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죄로 물든 성전을 청소하신 뒤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요 2:13~18)을 향해 대담하였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이 말을 기억하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모욕(마 27:39)하며 도전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 이들과 함께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마 27:41~43)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겁내었다.(마 27:62~64)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은 삶을 통한 도전이었다. 삶을 통한 도전은 우리의 신앙도 위협한다. 이 도전은 우리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만든다. 아니 분명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막 15:25) 그러나 삶을 통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백부장과 밧 한 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 27:54)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가 증언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부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연구하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믿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이 쌓아 온 종교적 명성을 잃을까봐 걱정하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였다.(마 28:11~12)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말한 것을 나누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열을 버려 사방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라함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 53:12)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죄인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가진 길은 “믿음의 길”이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십자가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향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자.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하신, 보배로운 나의 주!”(한 148장) 믿음의 길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 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도구가 되자.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총의 역사이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뿌리 내린 믿음의 순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뒤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가? 영의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눅 8:9)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시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말씀에 정통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마 13:10~13)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눅 8:10)

비유는 구약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될 정도로 어떤 말씀을 누구나 이해하고 알도록 도와준다.(겔 17:2) 그럼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말씀에 능통하였던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과 끝에 “들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천국의 비유는 영의 귀를 열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간파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너무 쉬워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초점을 둔 가치관, 종교관, 성경관을 써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6개의 씨는 각각 길 가, 돌밭, 가시떨기, 30배 땅, 60배 땅, 100배 땅에 떨어졌다. 이 중에 우리의 심령은 어느 땅인가? 영의 귀를 열고 은총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람으로 늘 인도하소서.”(한 447장)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절뿐만 아니라 매번 절집안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 등록예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낯설었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전혀 나에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썩은 뿌리의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듯이 저에게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들이니!"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나는 죄인인가?' 등 의문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가슴은 답답했고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씀에 굶주렸고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왜 진리의 말씀이니라 하는지?' 갑갑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출근길에도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쉬지 않고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강한 회오리바람처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마른 나의 가슴에 단비를 적시듯 달콤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속에 수많은 지혜와 권능과 기쁨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니라. 이방인이었던 죄인에게 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내 힘으로 거듭나기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한다.'라고 주일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남편과 아들도까지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2년 간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부부는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천주교회의 가족이 되니 정말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주의 곁에 있을 때"(찬 401장) 찬가를 위임목사님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가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속삭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쁘게 슬퍼도 이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내 안에 사랑과 화로써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의 이름을 생명의 줄에 올려주시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과 기쁨의 세례식을 완회 의 눈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선(성도, 13교구)

그 과거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종교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신의 기적이 아니라고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니까요." 얼마 전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았던 병원의 주치의가 동생에게 한 말이다. 종교가 없었던 사신선생모차 동생의 완치를 신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했었다. 주님은 무지한 우리 가족에게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셨나 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제심을 말이다.

2006년 7월, 동생은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고, 그 무렵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내 머리로는 '주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동생은 우리 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고 무척이나 착하고 예쁜 동생이었기에 나는 동생에게 나쁜 병을 주신 주님께 원망의 쓴 소리를 했었다. 하지만 불과 일년 반이 지난 지금의 나는 매우 금요말미다 사람의 구주를 외치며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싶고 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새벽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소 교회 다니는 것에 반기를 들던 아버지께도 얼마 전 세례를 받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은총이다. 건강했던 동생은 이전보다 더 맑은 웃음을 띄며 주님의 말씀으로 육신과 영이 점점 더 살았고 있다. 내 나 천사 같은 동생으로 인해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또 내 곁에 예수님이 어찌해 여기서는 동생을 주셨고, 또 성령충만을 주셨다. 이제 나는 내 살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내 동생이 육체적 고통으로 뒤쳐있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 모두 물서리쳐지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동생이 아프지 않은 과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 또한 내가 주님도 모른 채 절만 믿고 살았던 그 과거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황선미(성도, 14교구)

믿음의 기도

힘들었던 과정을 거친 뒤 드리는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에서 그런지 예배 내내 은혜로 충만했다. 특히 건강이 거의 회복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몇 년 전 남편은 갑자기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진단결과는 '망막박리'(망막이 그 아래쪽의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였다. 결국 수술을 하였고, 계속 재발되어서 내 차례나 수술은 반복되었다. 결국 남편은 회사도 그만 둔 채 아주 힘든 1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봉사하던 찬양대는 커녕 주일예배조차도 내 손을 의지한 채 가με그 드림팀이었다. 늘 찬양과 함께 하던 남편이 눈 수술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지 결해서 지켜보기가 힘이 들었다. 고음을 내면 눈에 압력이 가해져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찬양하고 싶다!"하는 남편에게 "안돼요. 조금만 참아요."하면서도 내 마음 역시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지내야했던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나에게 있어 그 시간은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물질과 건강을 한꺼번에 잃고 보니 당연히 주님께 간절히 질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을 것을…….' 주님이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이다. 의사선생님도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나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푸셨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비록 지금 행진이 조금 어렵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에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하다. 비행기를 타면 안압이 높아져 신경은 못가지만, 다시 찬양대 봉사를 시작한 남편과 함께 찬양을 맡게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또 감사했다. "호산나 다윗의 지손이여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는 말씀에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곁웃을 바닥에 깔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류영희(집사, 4교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찌한 자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 2:10)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가족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당 못할 크신 사랑을 무조건 주셨지만 미련한 자 중의 어리석었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끌어내리기 일수였던 악행자였습니다. 눈은 있으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입술로는 말씀의 순종을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좇아 분주했던 교만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뉘엿뉘엿한 말씀인 "나는 날마다 축복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집에 붙여 놓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막 부임하셨을 때로 기억합니다.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었지만 저를 고인하게 하였고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인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그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죄성은 여전히 괴할 바위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였고, 때마다 저는 깨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전임에도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워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인제 나 성령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터지는 폭적이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 내듯 내 안에서 감사의 덩어리들이 터져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인이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그네 인생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머뭇치 마시라 무슨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디모데가 권면 받은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불결 같지 않도록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황은화(집사, 24교구)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

중등2부팀



- ▶ 집안으로 맞아주시지 않아 문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더니 집 주인이 나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연)
- ▶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편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게도 그 곳의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문중)
- ▶ 선교 마지막 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기도 좀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자매가 3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양해원)

- ▶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소연)
- ▶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운선)
- ▶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달란 집의 문을 열어 주시며 사람의 마음 문까지 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의 선교를 잘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김하빈)
- ▶ 주님은 선교지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어눌한 언어로 전한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가 자라나고 열매 맺히리라 믿습니다. (박경진 교사)
- ▶ 어린 영혼들이 주의 빛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주영 교사)
- ▶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확고로 다니지 못한 자매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을 때 수줍은 얼굴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송미영 교사)
- ▶ 온종 구름구름한 눈물 길을 한참 돌아다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영민 교사)
- ▶ 축하생들과 함께 하는 첫 사역이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저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서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민섭 교사)
- ▶ 우리 12명을 주님의 도구에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윤병식 교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1교구 2지역	임채봉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4교구 2지역	김흥기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4교구 5지역	허형철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50	김지열	14	청년2부	우종호(8)	470	박희철	5	청년2부	한기희(5)
451	정병민	11	청년2부	전귀환(8)	471	김종호	13	청년2부	임은혜(1)
452	이승희	6	청년1부	전혜진(9)	472	성근호	13	청년2부	임은혜(1)
453	홍창기	2	청년3부	장규제(2)	473	장철선	1	유년부	임은혜(1)
454	이성진	5	청년1부	박달래(24)	474	공은혜	1	유년부	임은혜(1)
455	라자	7	청년1부	공정자(9)	475	오종호	1	유년부	임은혜(1)
456	권다영	2	대학부		476	박시나	2	대학부	한만교(24)
457	박정훈	19	청년1부	김정진(2)	477	김현철	17	중등3부	지현희(17)
458	문예비	11	청년1부	강석하(20)	478	윤슬수	17	고등부	주순희(3)
459	프리미어	25	외선부	정재동(8)	479	신혜현	19	중등2부	이민숙(19)
460	전도파우	25	외선부	오혜선(11)	480	임현화	9	청년1부	김성자(9)
461	청진진	25	외선부	황정미(7)	481	김민희	21	청년1부	강민선(5)
462	김기현	7	대학부		482	최하경	22	중등3부	문영자(1)
463	이도희	6	고등부		483	박정훈	4	중등2부	정진리(4)
464	이준경	6	고등부		484	차연비	5	소망부	이분숙(10)
465	문은은	22	청년1부	김태희(14)	485	김다나비	17	대학부	
466	양정수	19	청년1부	임영희(14)	486	도인환	10	청년2부	도승애(17)
467	김광동	7	청년2부	김현비(11)	487	김경일	15	청년2부	안인희(9)
468	김미연	3	청년1부		488	신재학	3	청년2부	이하나(3)
469	김동희	14	청년2부	주영선(14)					

* 중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십자가로 가까이

2007년 여름 임마누엘 찬양대팀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게 되었다. 선교는 모든 교인들이 가는데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웠던 마음과 내년부터는 학교일이 바빠져서 방학 때 조차도 선교를 갈 수 없었다는 마음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많은 멋진 일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도할 일이 내 평생에 또 있었는가' 하는 생각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만 전파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음 전도를 하는데 한 골목으로 다른 팀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또 멀리서 커다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오는 아주머니도 보였다. 달려가서 전도지를 주고 싶었던 우리 팀이 가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전도지를 받겠거니 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가게 되었다.

조금 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먼저 올라갔던 선교팀에서 전도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찬양을 몇 곡 부르다가 깜짝 놀랐다. 조금 전에 보았던 커다란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지 않고 그 위에 엉겨주춤 서 있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쪽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이 쪽에 같이 서자고 부르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찬양소리에 이끌려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책과 전도 책받침,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눈물이 나왔다. 갑갑한 마음과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땀과 눈물,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별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그것도 거하실 곳이 없어 말기유에 누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땅 끝까지 전파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분들에게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홀린 보혈로 정제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게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렀네."

정순영(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준 목사(2003. 12. 30. ~ 2008. 3. 4. 재직)



이경준 목사님이 지난 3월 17일부로 삼복교회(서울시 동작구 신도동 소재)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담임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과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사를 전합니다. 이경준 목사님이 복을 받으시기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41대 장로 후보자 명단

 이호일 나이 66 교구 24 봉사 부서 장년3부교사 사무살결원양대 번호:1	 추병창 나이 63 교구 10 봉사 부서 지역장 차량위원 번호:2	 최세진 나이 60 교구 2 봉사 부서 지역장 할렐루아원양대 번호:3	 김홍기 나이 57 교구 24 봉사 부서 지역장 탁아부감 번호:4	 박광식 나이 56 교구 6 봉사 부서 지역장 초등부감 번호:5
 류기명 나이 56 교구 14 봉사 부서 지역장 중등2부감 번호:6	 박성명 나이 55 교구 16 봉사 부서 지역장 새가족양육부감 번호:7	 이상복 나이 54 교구 8 봉사 부서 지역장 고등부교사 번호:8	 지규성 나이 52 교구 6 봉사 부서 지역장 대학부감 번호:9	 박종울 나이 48 교구 20 봉사 부서 지역장 중등1부감 번호:10

(나이순)

제21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이정신 나이 65 교구 18 봉사 부서 차량위원 마울전도회장 번호:1	 서상근 나이 64 교구 20 봉사 부서 고등부교사 남성구역장 번호:2	 권중철 나이 63 교구 15 봉사 부서 재정부 마울전도회장 번호:3	 신동수 나이 61 교구 4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마울전도회장 번호:4	 백승환 나이 60 교구 24 봉사 부서 차량위원 남성구역장 번호:5
 박문선 나이 60 교구 23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새가족양육부장 번호:6	 이도현 나이 58 교구 5 봉사 부서 카브리엘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7	 오형석 나이 58 교구 8 봉사 부서 마울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8	 김춘광 나이 58 교구 1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남성구역장 번호:9	 최인규 나이 57 교구 22 봉사 부서 재정부 마울전도회장 번호:10
 최현구 나이 55 교구 13 봉사 부서 지역장 교구간사 번호:11	 구승희 나이 54 교구 16 봉사 부서 자원봉사부장 남성구역장 번호:12	 김주현 나이 54 교구 15 봉사 부서 카브리엘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13	 장상길 나이 54 교구 2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14	 백재홍 나이 54 교구 12 봉사 부서 영아부교사 메트로전도회장 번호:15
 이연범 나이 54 교구 7 봉사 부서 교구간사 남성구역장 번호:16	 홍선기 나이 53 교구 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마울전도회장 번호:17	 이찬재 나이 51 교구 3 봉사 부서 예배안내 새가족양육부장 번호:18	 전귀환 나이 51 교구 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19	 유형근 나이 50 교구 15 봉사 부서 교구간사 남성구역장 번호:20
 김정배 나이 50 교구 6 봉사 부서 새가족양육부교사 새가족양육부장 번호:21	 신현철 나이 48 교구 10 봉사 부서 할렐루아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22	 이호식 나이 47 교구 22 봉사 부서 할렐루아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23	 송중석 나이 45 교구 14 봉사 부서 예배안내 요한전도회장 번호:24	 신현욱 나이 44 교구 11 봉사 부서 차량위원 남성구역장 번호:25
 김영휘 나이 44 교구 20 봉사 부서 할렐루아찬양대 요한전도회장 번호:26	 박대균 나이 43 교구 10 봉사 부서 임마누엘찬양대 요한전도회장 번호:27	 박형식 나이 42 교구 19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28	*다음 주일(30일) 4부예배 후(오후 2시, 본당) 공동의회 시 장로 · 안수집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나이순)

3월 출현 기도의 창

- ### 3월 **충현 기도의 창**
- 1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2 **위임이사인의 사역을 성령께서 토크하시**

모 집사기의 책임을 전하는 데 성공이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
을(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가인신교사, 보내는 신교사 가 회계 8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 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음을 전하는 주이들이 되게 하시며

28 (금)	29 (토)	30 (주)
철/강석화 렘 4:1-10	이광현/한성임 렘 4:11-22	탁정현/윤 렘 4:23

찬 양
하나님의 독생자(호산나 찬양대)
오 신실하신 주(실로암 찬양대)
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강혜연 / 스프라노 김성
(예배 전 찬양)
외 / 스프라노 장순영(미뉴레 찬양대 솔로리스트)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외 / 대성중합창(루사 찬양대 솔
반석이신 외 / 바이올린 강혜연(이엔 웨스트라)
아 찬양당과 외 / 바이올린 신하영(멜 웨스트라)
안수침사 주종만 / 실로암 찬양대 / 11교구

섬 · 기 · 는 · 분 · 들

집회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저녁 10:30	금요일당회후 부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및 중국어,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주부 예배는 중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와 통역해드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der's Church of Christ,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3:10	배 다 니 홀
장 부	오후 3:15	강 말리 홀
장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6:30~일출 9:00	선교관 1층
양부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원이집	주건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제인교육	주건교육	충원복지관
이인교육	오전 11:00	안 매 소

위임목사

김성 관

■ 부목사

차신득 선교교회 1952년	박기근 (여)1941 장로교	여국근 신교교회 1952년	안장덕 15.02 기독교	장진호 대학부 5.22	김익희 3.22 15.02
전홍열 기독교회 1952년	장 조 8.22	임현덕 8.22	이희식 7.02	하종철 5.22	안치원 2.22
이형수 기독교회 1952년	장홍진 1952년	양종욱 1952년	이성린 6.02	이재영 1.22	김준희 15.02
이계인 기독교회 1952년	윤우일 1952년	황진섭 20.02	유세진 세무교회 11.22	장영구 11.22	전성원 회신부
조종환 기독교회 1952년	김기원 1952년	양태신 1952년	유원철 1952년	탁정원 1952년	김한수 14.02
조영환 기독교회 1952년	최재식 22.02	최경진 23.02	박용현 24.02	강현철 1952년	이광원 1952년
강형철 천주교 1952년	강오성 21.02	윤호완 21.02	김근영 21.02	박준식 21.02	

함정주 1952년

김장국 선교교회 1952년	윤은조 15.02	강연식 3.22	홍은재 5.22	이옥주 2.22	김말자 1.02
장승국 1952년	장영진 8.22	강덕택 8.22	최문신 12.22	김종우 10.22	김경자 14.02
신선진 기독교회 1952년	강연익 2.22	이복순A 21.02	류진희 22.02	임태진 22.02	임대우 17.02
장정주 2.22	강기영 2.22	옥지자 9.22	이복순B 11.22	전영희 19.02	이혜숙 6.22
김태식 기독교회 1952년	황순안 15.02	김정훈 24.02			

■ 전임지휘자 김소연 김현진

■ 전임목사 이상재 1952년	김소연	김현진	전임지휘자	장원희	노은영
---------------------	-----	-----	-------	-----	-----

■ 전 교 사

■ 전 교 사

■ 전 교 사

■ 전 교 사